

## “핵심은 재벌 특혜 정책과 독과점이다”

###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산업은행 부당압력 규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결합 심사 승인 부당압력 산업은행 규탄,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재벌 특혜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문재인 정부 산업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3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을 인수후보자로 확정했다. 금속노조와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불공정 재벌 특혜 ▲조선산업생태계 붕괴 ▲남해안 조선기자재 벨트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매각은 현재 유럽연합 경쟁 심사당국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교착상태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코로나 19 핑계를 대지만, 조선산업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맺은 현물출자·투자



계약 종결기한을 올해 말까지 네 번째 연장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의 합병이 독점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리라고 기대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대충 구색만 맞추면 승인되리라고 믿었다면 순진한 것이다”라면서, “이 모든 경우를 예상하고도 강행했다면 다른 의도가 깔린 악랄한 짓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핵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에 관한 산업 정책상 분석과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재벌 특혜 정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산업은행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은 늘 재

벌 중심이었다”라며 “재벌 중심 산업정책 수립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용화 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매각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은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산업은행은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찬하지만, 대우조선 매각 건을 놓고 보면 무식한 집단”이라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유럽, 경남도민, 노조 핑계를 대지만 결국, 독과점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신태호 수석부지회장은 “대우조선 당사자와 경남을 포함한 탁자에서 대우조선의 미래, 조선산업의 미래, 항공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산업전환협약 맺고 금속산업 노·사 중앙교섭 마무리

## 26일 조인식·기후위기대응 공동선언 체결 ... “산별교섭 확대 힘쓰겠다”

금속산업 노·사가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월 26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1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올해 금속산업 노·사는 한국 산별노조 최초로 ‘산업전환협약’을 맺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미 있는 합의들을 함께 이루긴 했지만, 사용자협의회는 여전히 멀리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라며 조인식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가 맺은 약속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실행하는지 제대로 살피겠다. 금속 산별교섭의 역할을 잊지 않고, 규모와 범위를 넓혀가는 일에 힘을 계속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19 경제위기 상황에 산업전환·기후위기 노사 공동 대응에 합의했고,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 앞서가는 산별교섭을 만들었다”라며 올 중앙교섭을 평가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사회 의제에 금속 노·사가 같이 대응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와 모범 사례를 계속 세우길 기대한다”라고 인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조인

식에서 ‘금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위한 금속 노·사 대정부 요구’를 채택했다. 금속 노·사는 정부에 ▲사업 재편·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정부 지원 정책·제도 개선 ▲정부·지방자치단체 참여 산업전환 대응 중층 협의체 마련 등을 요구했다.

### 내년 금속산업최저시급 9,250원 ... 관계사 노동자에게도 적용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교섭 끝에 8월 11일 ‘202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이를 놓고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66곳의 조합원 15,912명이 10월 12일부터 3일 동안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11,810명(87.5%)이 찬성해 가결됐다.

올해 금속산업 노·사는 중앙교섭을 통해 ‘산업전환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전환 시기 대응계획을 노사가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는 한편,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교육·훈련, 기후위기 대응 등에 관한 논의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도 이끌어냈다. 산업전환 시기 노·사가 ▲충고용 보장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 훈련과정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 수립 등을 공동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국제, 국가 차원뿐 아니라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일관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2021년 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사용자들은 2022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9,250원과 월 통상임금 209만5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2021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5.11% 올랐다. 적용 대상에 ‘관계사 노동자’도 새로 포함됐다.

